

KICI Brief

2025년 2호

KICI Brief

2025년 2호

제1장 KICI Insight	05
1.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해설서 개발 방향 및 시사점	06
2. 정보통신공사 설계 및 시공기준 추진현황 및 시사점	16
제2장 Issue Brief	27
1.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 제도 시행	28
2. SK텔레콤 유심 해킹 대란	31
3. 국방 5G 인프라 구축사업 추진	34
4. 2025년도 통신서비스 품질평가 추진계획 발표	36
5. AI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 급증	39
제3장 Stats	43
1. 정보통신공사비지수 동향	44
2. 정보통신공사업 경기실사지수(BSI) 동향	45
제4장 KICI News&Now	47
Event Info	50

KICI Insight

주제1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관리 및 성능점검 해설서 개발 방향 및 시사점

1. 연구 배경	06
2. 유지보수·관리 세부기준 현황	07
3.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해설서 개발 방향	10
4. 시사점	12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해설서 개발 방향 및 시사점

표준융합실 김진호 선임연구원 / kjh@kici.re.kr

1. 연구 배경

- ▣ 건축물 등에 설치된 정보통신설비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 및 이용 기회 보장을 위한 유지보수·관리 등 의무화가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을 통해 시행('24.7.19 시행)
 - 건축물에 설치된 다양한 정보통신설비를 유지보수·관리와 성능점검으로 구분하여 관리될 수 있도록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7조의2부터 제37조의4까지 관련 조문을 신설하고, 규정 미준수에 따른 과태료 규정은 제78조에 규정
- ▣ 신설 법제도 내 의무 관리 대상 범위에 해당되는 건축물은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에 규정('24.11.1 시행)
 -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라 구분된 용도별 건축물 중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을 기준 대상으로 규정
 - 다만, 예외 규정에 의해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과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의 적용을 받는 학교에 설치된 학교시설은 제외
- ▣ 본 고에서는 새롭게 도입된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에 기반이 되는 업무해설서(세부 기술자료)에 대한 구체적인 개발 방향을 제시
 -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업무 절차, 점검 항목 및 방법, 양식 작성 방법 등 업무에 필요한 정보 제공을 통해 법제도 적용의 혼란 최소화

2. 유지보수·관리 세부기준 현황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유지보수·관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기준」 고시 제정(안)을 마련하여 국민 의견수렴 추진을 위한 행정예고 실시 ('25.5.2)
- 제정(안)에서는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등 이해관계자의 역할과 의무 사항, 운영 및 관리 방법, 대가기준 등 제도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과 세부사항 규정
 - 고시 제정(안)을 구성하는 조문은 총 13개 조항으로 구성된 본문과 부칙 2개 조항으로 구성되며, 유지보수·관리와 성능점검 행위를 조항으로 구분하여 세부내용을 명시

【표-1】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기준」(안) 조문 구성 및 주요내용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기준(안)」 조문 체계		주요 내용
제1조	목적	▶ 고시 체계 구성을 위한 필수 조문
제2조	정의	
제3조	적용범위	
제4조	다른 규정과의 관계	
제5조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일반사항	▶ 유지관리 등 점검 주체 및 제도 방향성에 대한 포괄적 내용 규정
제6조	유지보수·관리 등을 위한 자료	▶ 건축물 등에 설치된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관리에 필요한 상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규정 ▶ 설비 구축 당시의 정보 및 이후 변경된 설비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기술자료 및 서류 등에 관한 세부기준
제7조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계획의 수립	▶ 관리주체의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 계획 수립에 필요한 세부기준 명시 ※ 점검 인력의 안전 및 정보통신설비 장애 시 조치 방법, 매뉴얼 등 ▶ 성능점검 시 인력 투입 및 장비 현황, 결과에 따른 조치 방안 등에 관한 세부기준
제8조	유지보수·관리	▶ 유지보수·관리 방법, 절차, 주기, 대가산정 등 명시
제9조	유지보수·관리업무의 위탁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7조의4에 따라 업무 위탁 경우의 세부기준 명시
제10조	성능점검	▶ 성능점검 시 기록 작성·보존, 결과 제출, 자체점검 기준 등 세부기준 명시
제11조	성능점검의 대행	▶ 업무 대행 관련 대가기준, 대행 기준, 후속조치 등 세부기준 명시
제12조	유지보수·관리자의 인정교육	▶ 유지보수·관리자 인정교육 관련 실시기준 명시
제13조	재검토기한	-

- 본문에서 규정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별표]는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대상 정보통신설비의 종류, 성능점검 검토사항, 대가산정 기준을 규정

[표-2]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기준」(안) [별표] 구성 및 주요내용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기준(안)」 [별표] 구성 및 주요내용		주요 내용
[별표 1]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대상 정보통신설비	▶ ①통신설비, ②방송설비, ③정보설비, ④기타설비 등 제도 범위 포함 정보통신설비의 종류 규정
[별표 2]	정보통신설비 성능점검 검토사항	▶ 정보통신설비의 특성 및 기능이 고려된 정보통신시스템 검토 내용, 성능개선 계획 수립 등 내용 규정
[별표 3]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대가산정 기준	▶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의 위탁 또는 대행 시 비용 산정을 위한 세부기준 규정

- [별지] 서식은 점검 현장에서 실제 업무수행 및 처리에 사용되는 양식으로, 각 서식별로 연관 내용의 기록 및 보관, 제출 등의 과정을 규정하며 정보통신설비에 대한 관리 데이터 구축에 필요한 서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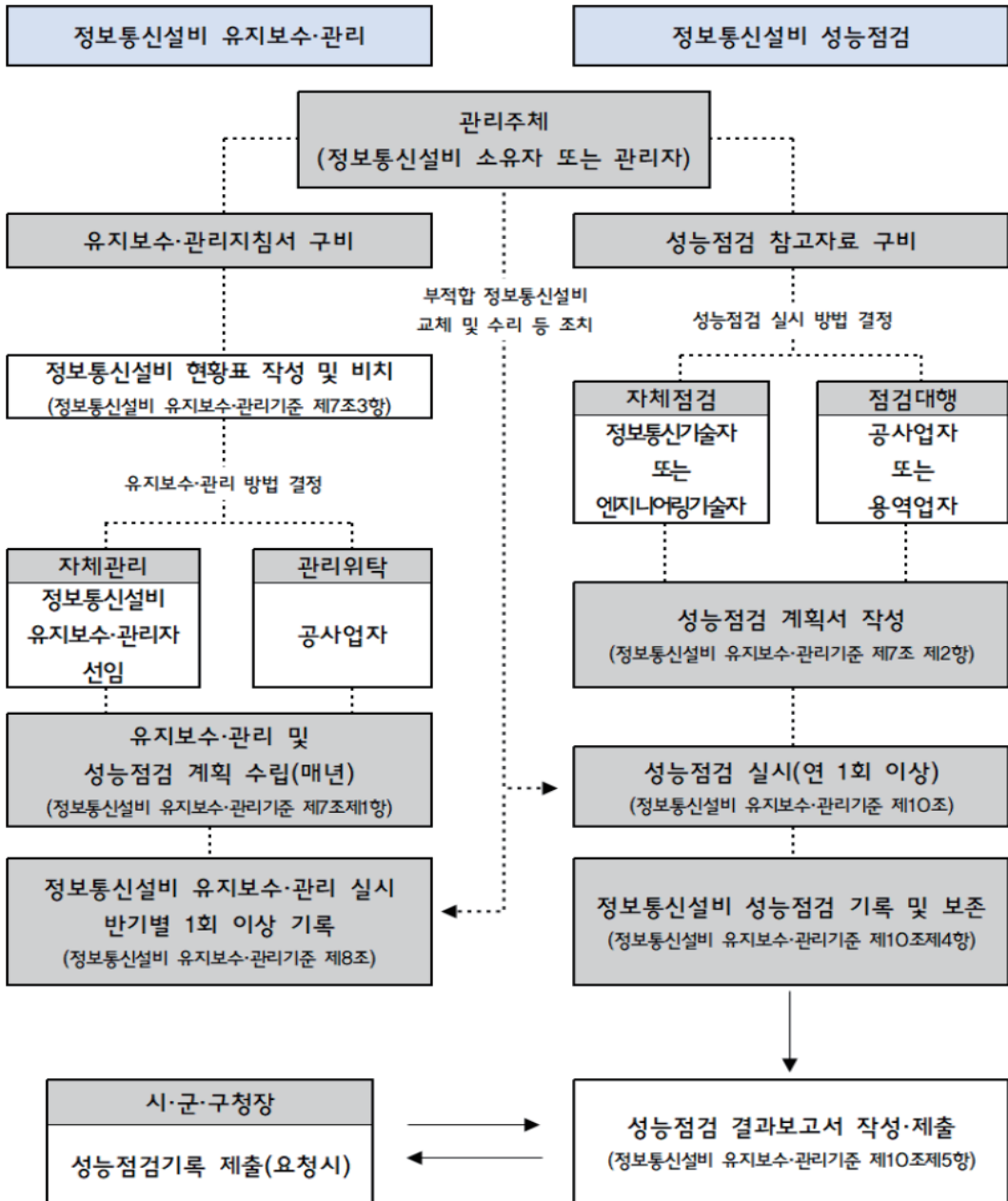
[표-3]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기준」(안) [별지] 구성 및 주요내용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기준(안)」 [별지] 구성 및 주요내용		주요 내용
[별지 1]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대상 현황표	▶ 건축물 등에 설치된 정보통신설비의 현황 파악 및 지속관리를 위한 설비 정보 작성 서식
[별지 2]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 점검표	▶ 유지보수·관리 시 수행하여야 할 세부 점검항목 제시 및 점검 결과 작성 서식
[별지 3]	정보통신설비 성능점검표	▶ 성능점검 시 수행하여야 할 세부 점검항목 제시 및 점검 결과 작성 서식
[별지 4]	정보통신설비 성능점검 결과 보고서	▶ 지자체 등에서 점검기록 제출 요구 시 기록 작성을 위한 서식

☐ 현재 행정 예고된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기준」의 내용 및 구성 등을 토대로 실질적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파악

○ 마지막으로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관련 체계도는 아래와 같이 구성할 수 있음

[그림-1]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체계도



※ 시·군·구청장: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3.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해설서 개발 방향

- ㉔ 해설서는 관련 제도에서 요구하는 세부 업무의 절차 및 방법을 체계적으로 기술하여 이용자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명확히 이해하고 실무 적용성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개발 필요
- ㉔ 해당 제도에 의해 수행이 필요한 업무의 유형을 분류하고, 각 유형별로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연계하여 해설서 개발 방향을 정립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기준(안)을 통해 발생하는 예상 업무는 ①계획수립, ②현장 점검, ③결과 기록 및 보존으로 구분
 - (계획수립) 건축물 관리주체가 수행하는 업무로서, 법령에서 요구하는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관련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하는 업무
 - (현장점검) 건축물 내 설치된 점검 대상 정보통신설비를 직접 관리·점검하는 업무이며, 정보통신설비에 관한 제반정보를 기반으로 수행 가능한 업무
 - (결과 기록 및 보존) 정보통신설비별 점검 완료 후 각 설비별 점검 결과 및 특이사항 등을 법정서식에 부합하도록 점검자가 내용을 작성하고, 관리주체는 점검결과지를 제도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존
- 업무별 성격에 따라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종류를 ①샘플양식 제공, ②서식의 작성방법, ③정보통신설비 정보, ④점검방법, ⑤기타정보로 구분
 - (샘플양식 제공) 법령에 규정된 서식이 없는 경우, 각 이해관계자가 해당 제도에 따른 세부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양식을 제공
 - (서식 작성방법) 법령에 규정된 서식을 제도 취지에 부합하게 작성될 수 있도록 서식을 구성하는 각 항목별 작성 방법 설명
 - (정보통신설비 정보) 법령에 규정된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대상 정보통신설비별 일반적인 특징 및 기능 등의 정보 제공
 - (점검방법) 법령에 규정된 각 정보통신설비별·구분항목별 세부 점검 사항을 어떠한 방법으로 점검하는지 설명
 - (기타정보) 법령에 규정된 사항 외에 업무에 참고할 수 있는 추가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

- 해당 제도에서 수행되어야 하는 업무의 종류와 업무 유형별 필요 정보 또는 자료를 연계하여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관련 해설서 개발 방향을 정립
- 계획수립 단계에서는 법기준을 준수하기 위한 구비서류를 작성하기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샘플 서식을 우선 제공하는 것이 효과적인 계획 수립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
- 현장점검 단계는 건축물에 설치된 정보통신설비에 대한 실질적인 점검이 이루어지는 업무이므로, 법기준에 규정된 대상 설비에 관한 기술 정보 및 점검 방법이 중요하게 작용될 것으로 판단
- 결과 기록 및 보존 단계에서는 법정 서식에 대한 이해를 위한 서식의 작성 방법과 설비정보 제공이 효과적인 것으로 판단

[표-4]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기준」(안) [별표] 구성 및 주요내용(1/2)

업무 구분	업무 내용	업무별 필요 자료 및 정보				
		샘플 양식 제공	서식 작성 방법	설비 정보	점검 방법	기타 정보
계획 수립	• 점검대상 정보통신설비 종류 및 항목 작성	*	*	*		
	• 설비별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절차, 주기 설정	*				
	• 재해방지 대책 수립	*				
	• 긴급상황 매뉴얼 작성	*				
	• 정보통신설비 사고 또는 이상상황 발생 시 조치 방법, 재발방지 대책 수립	*				
	• 점검 방식(자체 또는 위탁 관리) 결정					*1)
성능 점검	• 성능점검 인력 투입계획 및 장비 현황 작성	*		*		
	• 안전 확보 및 품질 관리 방안 마련	*				
	• 성능점검 결과에 따른 조치 방안 마련	*				
현장 점검	• 건축물 점검 대상 설비 종류 파악			*		
	• 대상 건축물 통신망 구축 현황 파악		*	*		*2)
	•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필요 장비 구비 및 사용방법 숙지					*3)
	• 비용 산정	*	*			
유지 관리 대상	• 점검 전 설비별 특성 파악			*		
	• 대상 설비별 점검 항목의 이해			*	*	
	• 점검 항목에 대한 점검업무 수행			*	*	

[표-5]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기준」(안) [별표] 구성 및 주요내용(2/2)

업무 구분	업무 내용	업무별 필요 자료 및 정보				
		샘플 양식 제공	서식 작성 방법	설비 정보	점검 방법	기타 정보
현장 점검	• 점검 전 설비별 특성 파악			*		
	• 대상 설비별 점검 항목의 이해			*	*	
	• 점검 항목에 대한 점검업무 수행			*	*	
	• 정보통신설비 시스템 전반 검토(작동상태, 설치현황 등)			*	*	
	• 정보통신설비 내구연수 및 노후도 파악	*		*	*	*4)
	• 정보통신설비의 부적합 사항 및 개선 필요사항 도출	*		*		
	• 정보통신설비별 성능 개선 필요성 작성	*		*		
결과	기록		*	*		
	보존					*5)

- 1) 건축물의 관리주체가 건축물 내 정보통신기술자 보유, 설비 설치 현황 등 비용 및 운영 효율성을 고려하여 선택·판단할 사항
- 2) 건축물의 정보통신설비 준공도면, 시스템 설치 확인도 등
- 3) 정보통신설비 품질 측정을 위한 측정장비 및 기구 등에 대한 정보
- 4) 조달청 내용연수 등 내구연한 초과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
- 5) 보존 방법에 대한 기준은 관리주체가 판단하여 소실되지 않도록 보존방법을 강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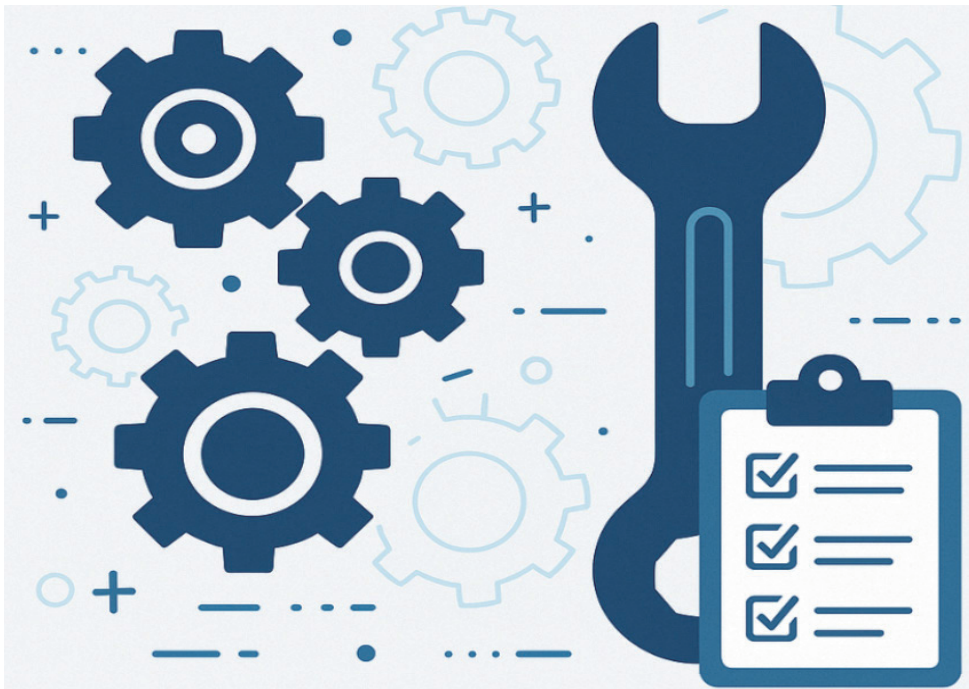
4. 시사점

☐ 정보통신산업 및 기술의 발전 속도를 고려한 법기준의 현실화와 이에 부합한 해설서 내용의 지속적인 업데이트 필요

- 해설서는 당시의 법적 기준을 반영하여 업무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자료이므로, 신규 추가 설비 및 장비 등에 대한 관리·점검 방법 등을 보완하여 해설서 자료의 실효성 유지 필요
- 기술 발전에 따른 AI·IoT 기반 모니터링 시스템, 원격 점검 시스템 등의 활용을 대비한 자료 개발도 고려 필요

- ㉔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관련 계획수립, 현장점검 등 업무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 기반을 마련하고 교육 기회를 제공 활성화를 통한 관련 업무 전문기술자 양성 필요성 증대
 - 정보통신설비에 대한 전문 지식과 높은 이해도를 바탕으로 제도 시행에 대한 혼란 및 시행 착오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교육에 관한 제도적 지원 정책 마련 필요
 - 점검 대상 건축물의 수와 해당 업무가 가능한 연관 기술자의 수를 예측하여 기술자의 공급 부족으로 인한 제도적 혼란을 미연에 방지

- ㉕ 제도를 통해 발생하는 건축물 내 정보통신설비 구축 및 관리 현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적인 정보관리 시스템 구축에 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
 - 현재의 법기준은 점검과정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를 일정 서식에 수기로 기록하고 보존하는 구조이므로, 건축물의 정보통신 인프라 관련 다양한 정보의 종합적인 모니터링 및 활용 한계 예상
 - 다양한 건축물 환경에서 발생하는 방대한 유지관리 및 점검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취합·연계 하여 정보 활용성을 제고함으로써 제도 미비점 보완 및 관련 정책방향 정립에 정보 활용
 - * 건축물 내 구축된 설비 정보,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 이력, 정보통신설비 조치(수리, 교체 등) 이력 등



KICI Insight

주제2

정보통신공사 설계 및 시공 기준(표준공법·표준설계설명서) 추진현황 및 시사점

1. 개요	16
2. 정보통신공사 현황	17
3. 정보통신공사 설계기준 및 시공기준 추진현황	21
4. 시사점	24

정보통신공사

설계 및 시공기준 추진현황 및 시사점

표준융합실 진명성 선임연구원 / msjin@kici.re.kr

1. 개요

- 4차 산업혁명은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5G 등의 정보통신기술(ICT)을 기반으로 산업 전반에 걸쳐 새로운 혁신을 앞당기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 속에서 전통적인 산업과 ICT의 융합이 가속화되어 정보통신공사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
 - 이러한 변화 속에서 정보통신공사의 품질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체계적인 설계 및 시공 기준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수
- 정부는 디지털 인프라의 고도화를 촉진하기 위해 정보통신공사의 설계 및 시공기준(표준공법·표준설계설명서)을 마련하여, 공사의 품질과 안전성 확보가 필요
 - 정보통신공사의 설계·시공을 위한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발주자, 용역업자, 공사업자 등 관련 유관기관들이 표준화된 기술을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
 - 본 기준은 정보통신공사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설계와 시공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기술적 요구사항과 절차를 규정
 - 다양한 전통 산업과 스마트 융합 공종의 개발·보급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동시에, 기존 표준 및 기술 자료를 현실에 맞게 개정·보완하는 작업의 병행이 필요
- 정보통신공사 설계 및 시공기준은 관련 법규 및 규정을 준수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공사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 수행

- 최신 산업 동향을 반영하는 것도 중요한 요소이며, 기술 발전 속도에 맞춰 기준을 지속적으로 개정 및 보완하여 현장 적용성을 강화
- 정보통신공사에 참여하는 모든 인력이 최신 기술과 기준을 반영하고,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공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기술적·제도적 지원이 필요
- 정보통신공사 설계 및 시공기준은 이러한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보통신망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구축을 위한 기초를 마련

2. 정보통신공사 현황

- 정보통신공사는 현대 사회의 핵심 인프라를 구축하는 필수 공정으로, 정보통신기술(ICT)의 발전과 산업 간 융합이 가속화됨에 따라 단순한 네트워크 구축을 넘어 스마트 인프라, 디지털 전환(DX), 초연결 사회 실현을 위한 기반 산업으로 자리 잡음
- (정보통신공사) 일상 생활에서 사용하는 인터넷, 전화, TV, 보안 시스템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모든 공사를 의미
- (정보통신설비) 크게 유선과 무선 방식으로 정보(음성, 영상, 데이터 등)를 저장, 제어, 처리하거나 송·수신하여 통신이 가능하도록 설치된 모든 장비와 설비를 의미

[표-1] 정보통신공사의 정의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보통신설비”란 유선, 무선, 광선, 그 밖의 전자적 방식으로 부호·문자·음향 또는 영상 등의 정보를 저장·제어·처리하거나 송수신하기 위한 기계·기구(器具)·선로(線路) 및 그 밖에 필요한 설비를 말한다.
2. “정보통신공사”란 정보통신설비의 설치 및 유지·보수에 관한 공사와 이에 따르는 부대공사(附帶工事)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를 말한다.
(이하 생략)

- 정보통신공사의 종류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크게 통신설비공사, 방송설비공사, 정보설비공사, 기타설비공사 등 4개 분야로 구분
- 세부적으로 통신선로설비공사, 전송설비공사, 구내통신설비공사 등 16개 중분류로 나뉘며, 소분류로는 총 159개의 세부 공종이 포함되어 다양한 설비와 공사의 유형을 구성

[표-2] 정보통신공사의 종류(「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별표1]) (1/2)

구분	공사의 종류	공사의 예시
통신 설비 공사	통신선로 설비공사	통신구설비, 통신관로설비, 통신케이블(광섬유 및 동축케이블·전주·지지철물·케이블방재·철탑·배관·단자함 등을 포함한다)설비 등의 공사
	교환설비 공사	전자식교환(ISDN 및 전전자를 포함한다)설비, 자동식교환설비, 비동기식교환(ATM)설비, 가입자선로집중운용보전시스템설비, 집단전화교환설비, 자동호분배장치설비, 중앙과금장치설비, 신호망설비, 지능망설비, 통신처리장치설비, 사설교환(PBX·CBX)설비 등의 공사
	전송설비 공사	전송단국(FLC·PCM·PDH·SDH·DACS·SONET·WDM)설비, 송·수신설비, 중계설비, 다중화설비, 분배설비, 전력선반송설비, 종합유선방송(CATV)전송설비 등의 공사
	구내통신 설비공사	구내통신선로·이동통신구내선로·방송공동수신설비, 전화설비, 방범설비, 방송설비, 방재설비중 정보통신설비, 수직·수평배관 및 배선설비, 주장비실설비, 층장비실설비, 장애자용음향통신설비, 키폰전화설비 등의 공사
	이동통신 설비공사	개인이동통신(PCS)설비, 휴대용이동전화(셀룰라)설비, 주파수공용통신(TRS)설비, 무선데이터통신설비, 무선폭출설비, 아이엠티2000(IMT-2000)설비, 위성이동휴대전화(GMPCS)설비, 시티폰설비 등의 공사
	위성통신 설비공사	위성송·수신국설비, 위성체설비, 지상관제소설비, 발사체설비, 위성측위시스템(GPS)설비, 소형위성지구국(VSAT)설비, 위성뉴스중계(SNG)설비 등의 공사
	고정무선통신 설비공사	무선CATV(MMDS·LMDS)설비, 방송통신융합시스템(LMCS)설비, 무선가입자망(WLL)설비, 마이크로웨이브(M/W)설비, 무선적외선설비 등의 공사
방송 설비 공사	방송국 설비공사	영상·음향설비, 송출설비, 방송관리시스템설비 등의 공사
	방송전송· 선로설비공사	방송관로설비, 방송케이블(전주·철탑·배관·단자함 등을 포함한다)설비, 전송단국설비, 송·수신설비, 중계설비, 다중화설비, 분배설비, 구내전송선로설비, 위성방송수신설비 등의 공사
정보 설비 공사	정보제어· 보안설비공사	인공지능빌딩시스템(IBS)설비, 관제(항공·교통·기상·주차)설비, 원격조정·자동제어(SCADA, TM/TC, 공장자동화 등의 정보통신설비를 포함한다)설비, 정보시스템관리설비, 방향탐지설비, 위치측정설비, 전자신호제어설비,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설비, 경비보안설비, 터널군관리(TGMS)설비, 수계통합자동제어설비, 수문제어설비, 홍수예경보설비, 민방공경보설비, 수도시설제어설비, 재해방지설비, 수처리(상수·하수 및 폐수 등을 포함한다)계측제어설비, 긴급구조시스템설비, 텔레메틱스(Telematics)설비 등의 공사
	정보망 설비공사	근거리통신망(이더넷LAN·ATM-LAN·기가비트LAN 등을 포함한다)설비, 부가가치통신망(VAN)설비, 광역통신망(WAN)설비, 정보시스템망관리(TMN)설비, 무선통신망설비, 전산시스템(CPU·C/S·제어장치 등을 포함한다)설비, 인터넷(인트라넷·엑스트라넷·방화벽 등을 포함한다)설비, 멀티미디어설비, 컴퓨터·통신통합(CTI)설비, 종합정보통신망(ISDN)설비, 초고속정보망(xDSL·케이블모뎀 등을 포함한다)설비, 판매시점관리시스템(POS), 유비쿼터스설비 등의 공사
	정보매체 설비공사	화상(영상)회의시스템설비, 홈뱅킹시스템설비, 원격의료시스템설비, 원격교육시스템설비, 주문대응형비디오시스템(VOD)설비, 홈오디오메이션시스템설비, 전자식전광판설비, 지리정보시스템(GIS)설비, 원격자동검침(AMR)설비, 홈네트워크(디지털홈)시스템설비, 동시통역시스템설비, 도시정보체계(UIS)설비, 공간영상정보시스템(SIIS)설비, 객실관리시스템설비 등의 공사

[표-2] 정보통신공사의 종류(「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별표1]) (2/2)

구분	공사의 종류	공사의 예시
정보 설비 공사	항공·항만 통신설비공사	무지향표식(NDB)설비, 전방향표식(VOR)설비, 거리측정(DME)설비, 계기착륙(ILS)설비, 로란 및 레이더(ASDE·ASR·MSR)설비, 전술항행(TACAN)설비, 위성항행(CNS/ATM)설비, 위성항법시스템(GNSS)설비, 위성항법보정시스템(DGPS)설비, 항공운항정보(FIS)설비, 저고도돌풍경보장치(LLWAS), 소음측정시스템, 셀프이용안내(KIOSK)설비, 이동지역관리시스템(MAMS)설비, 종합정보통신시스템설비, 일반공중통신시스템설비, 통신자동화시스템설비, 통합경비보안시스템설비, 해안무선(VTS 및 해안지역 각종 통신시설)설비 등의 공사
	선박의 통신· 항해·어로 설비공사	선박통신설비(GMDSS, 조난구조장치, MF·HF·VHF·SSB의 송수신기, 전파수신기, 위성통신기, SSAS, 선내지령장치 등), 선박항해설비(RADAR, 기상수신기, GPS, 전자해도장치, RDF, 측심기, NAVTEX, AIS, VDR, 풍속계, 선속계, 콤팩스, 자동조타장치 등), 선박어로설비(어군탐지장치, 어망감시장치, 수온측정장치, 조류계 등) 등의 공사
	철도통신· 신호설비공사	역무자동화(AFC)설비, 토크백설비, 연선전화설비, 열차무선설비, 사령전화설비, 자동안내방송설비, 전자시계설비, 복합통신설비, 행선안내게시기설비, 도관전선관(HP)설비, 통신 및 신호용 트로프설비, 자동열차정지장치설비, 열차집중제어장치설비, 전자식신호제어설비, 열차내이동 무선공중전화설비, 여객자동안내장치설비 등의 공사
기타 설비 공사	정보통신전용 전기시설 설비공사	정보통신전기공급설비, 전기부식방지설비, 전력·전철유도방지설비, 무정전전원장치(UPS)설비, 총방전·전압조정설비, 전동발전기설비, 접지설비, 서지설비, 낙뢰방지설비, 잡음·전자파(EMI·EMC·EMS 등을 포함한다)방지설비 등의 공사

☑ 정보통신공사는 정보통신기술(ICT),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등 첨단 기술의 발전과 함께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디지털 전환(DX)과 스마트 인프라 구축이 가속화됨에 따라 시장 규모 또한 꾸준히 확대되어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

○ 국내 정보통신공사 시장규모로, 2023년도 총 공사실적은 19조 5,884억원으로 2022년도 실적 18조 5,026억원 대비 5.9% 증가

[표-3] 업체 평균 정보통신공사 실적('22~'23년)

2022년				2023년				실적액 증감율 (%)
대상 업체수	신고 업체수	실적액 (백만원)	구성비 (%)	대상 업체수	신고 업체수	실적액 (백만원)	구성비 (%)	
11,964	10,739	18,502,676	100	12,327	11,084	19,588,433	100	5.9

[출처]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2023년도 정보통신공사업 통계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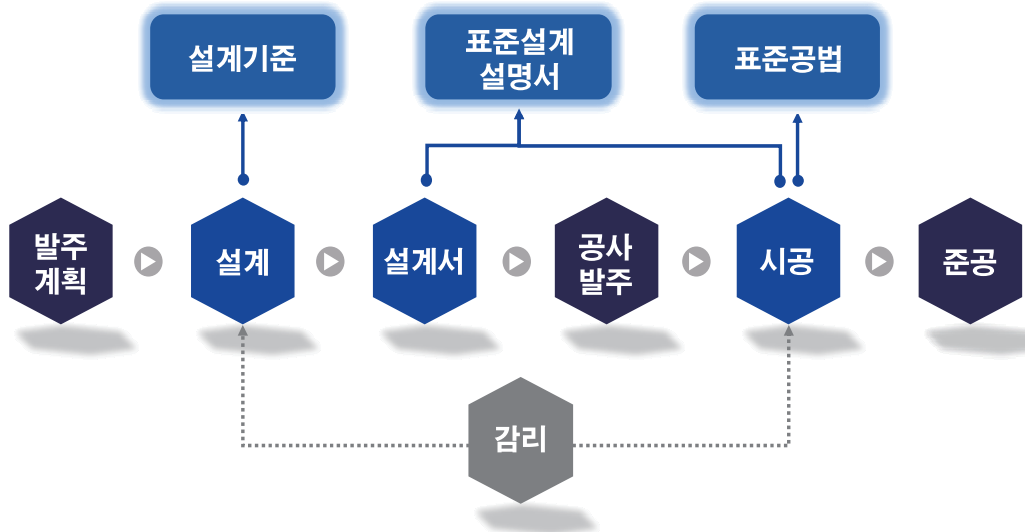
- ☐ 2023년도 주요 공종별(17개) 정보통신공사 실적은 구내통신설비공사가 4조 3,364억 원을 기록하며 전체 공종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그 뒤를 이어 정보제어·보안설비공사가 4조 2,064억 원을 기록
- 상위 3개 공종(구내통신설비공사, 정보제어·보안설비공사, 통신선로설비공사)의 총 공사 실적은 11조 6,136억 원으로, 전체 공사 실적(약 19조 5,884억 원)의 59.3%를 차지

[표-4] 주요 공종별 정보통신공사 실적(2023년도)

구분	공종명	실적금액(백만원)	구성비(%)
1	구내통신설비공사	4,336,468	22.1
2	정보제어·보안설비공사	4,206,466	21.5
3	통신선로설비공사	3,070,636	15.7
4	정보망설비공사	2,005,914	10.2
5	정보통신설비유지보수공사	1,945,666	9.9
6	이동통신설비공사	1,372,604	7.0
7	정보매체설비공사	732,056	3.7
8	방송국설비공사	407,203	2.1
9	정보통신전용전기시설설비공사	363,522	1.9
10	전송설비공사	239,496	1.2
11	교환설비공사	221,855	1.1
12	철도통신신호설비공사	176,272	0.9
13	항공·항만통신설비공사	168,677	0.9
14	방송전송·선로설비공사	109,130	0.6
15	선박의 통신·항해·어로설비공사	105,959	0.5
16	위성통신설비공사	87,399	0.4
17	고정무선통신설비공사	39,109	0.2

- ☐ 정보통신공사는 체계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되며, 주요 단계는 발주계획, 설계, 공사 발주, 시공, 준공 등으로 구분
- 각 단계에서 설계기준, 표준설계설명서, 표준공법을 적용하여 품질과 적정성을 확보하고, 감리가 병행되어 공사의 관리와 규격 준수

[그림-1] 정보통신공사 전체 프로세스



3. 정보통신공사 설계기준 및 시공기준 추진현황

- 정보통신공사 설계기준은 정보통신기술의 고도화, 융합화 추세에 따라 최적의 정보통신공사 수행을 위한 세부적이고 객관적으로 제정
 - 시설물 안전성, 기능성, 경제성 등 확보하기 위해 설계자가 준수해야 하는 기술적 지침을 법령과 규정에 따라 기술하여 정보통신설비의 설계 시 고려사항 및 효율성 등을 제공
 - 설계-시공-유지관리 등 정보통신공사 전 과정에 적용되며, 객관적인 기준 제공으로 품질 확보, 안전 및 적정 공사관리 등에 활용
- 정보통신공사 설계기준은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5조~제7조에 따라 설계 시 준수해야 할 기술기준, 적용 대상 공사, 범위 등을 명확히 규정

[표-5] 정보통신공사 설계기준 법적 근거(1/2)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5조(설계에 있어서의 기술기준) 법 제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술기준을 말한다. 1. ~ 5. (생략)

[표-5] 정보통신공사 설계기준 법적 근거(2/2)

「정보통신공사사업법 시행령」	
제6조(설계대상인 공사의 범위) ①	법 제7조에 따라 용역업자에게 설계를 발주해야 하는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제외한 공사로 한다. 1. 제4조에 따른 경미한 공사 2. 천재·지변 또는 비상재해로 인한 긴급복구공사 및 그 부대공사 3. 별표 1에 따른 통신구설비공사 4. 기존 설비를 교체하는 공사로서 설계도면의 새로운 작성이 불필요한 공사 ② (생략)
제7조(설계도서의 보관의무)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공사의 설계도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보관하여야 한다. 1. 공사의 목적물의 소유자는 공사에 대한 실시·준공설계도서를 공사의 목적물이 폐지될 때까지 보관할 것. 다만, 소유자가 보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을 때에는 관리주체가 보관하여야 하며, 시설교체 등으로 실시·준공설계도서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후의 실시·준공설계도서를 보관하여야 한다. 2. 공사를 설계한 용역업자는 그가 작성 또는 제공한 실시설계도서를 해당 공사가 준공된 후 5년간 보관할 것 3. 공사를 감리한 용역업자는 그가 감리한 공사의 준공설계도서를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보관할 것

☑ 정보통신공사 설계기준은 2020년 ‘설계업무 수행기준’을 시작으로 유선·무선설비, 스마트융합설비(ICT+의료/복지/환경, 안전, 교통, 건설) 등 총 150개의 세부 공종에 대한 설계 기준을 제정

[표-6] 정보통신공사 설계기준 추진현황(2020-2024년)

연도	설계기준서 주요 내용	수량(세부 공종수)		비고
2020년	• 정보통신공사 설계업무 수행기준	1종		제정 완료
2021년	• 통신설비공사-유선설비	1종	34개	
	• 스마트융합설비(ICT+의료/복지/환경)		10개	
2022년	• 통신설비공사-무선설비, 방송설비	1종	25개	
	• 스마트융합설비(ICT+안전)		9개	
2023년	• 통신설비공사-정보제어·보안설비	1종	25개	
	• 스마트융합설비(ICT+교통)		10개	
2024년	• 통신설비공사-정보망·정보매체설비	1종	27개	
	• 스마트융합설비(ICT+건설)		10개	
합 계		5종	150개	

※ 2025년 설계기준의 항공·항만 통신설비, 선박의 통신·항해·어로설비, 스마트융합설비(ICT+에너지 분야) 개발 추진

- ☐ 정보통신공사의 효율성과 품질을 높이기 위해 공종별 분류체계를 정비하고, 각 공사 종류에 맞는 시공기준(표준공법과 표준설계설명서)을 제정하여 보급
 - 이를 통해 정보통신공사의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고, 정보통신설비별 시공방법을 표준화하여 시공 품질과 안정성 확보
 - 또한, 디지털 전환과 스마트 인프라 구축에 맞춰 네트워크 인프라의 고도화를 추진하고, 신기술 개발을 촉진

- ☐ 정보통신공사의 시공기준(표준설계설명서, 표준공법)은 설계과정에서 도면으로 표시할 수 없는 공사의 재료, 시공 방법, 품질기준, 검사 절차 등의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
 - (표준설계설명서) 공사 시행의 일관성, 적정성과 품질확보 등이 목적이며, 주로 표준적인 시공기준 및 가이드라인 제시
 - (표준공법) 정보통신공사에서 공종별 표준화된 시공 과정을 도면, 사진, 공사의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

- ☐ 정보통신공사 설계 및 시공기준에 대한 정의와 범위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제6조(기술기준의 준수 등)에서 “공사의 품질 확보와 적정한 공사 관리를 위한 기준으로서 설계기준, 표준공법 및 표준시방서 등을 포함”으로 규정

[표-기] 정보통신공사 설계 및 시공기준 법적 근거

「정보통신공사업법」
제6조(기술기준의 준수 등) ① ~ ② (생략)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공사의 설계·시공 기준과 감리업무 수행기준을 마련하여 발주자, 용역업자 및 공사업자가 이용하도록 할 수 있다. <신설 2018. 12. 24., 2019. 12. 10.>
1. 설계·시공 기준: 공사의 품질 확보와 적정한 공사 관리를 위한 기준으로서 설계기준, 표준공법 및 표준설계 설명서 등을 포함한다.

- ☐ 정보통신공사 시공기준(표준공법, 표준설계설명서)은 2012년을 시작으로 2024년까지 표준공법 15종(154개 공종), 표준설계설명서 22종(172개 공종) 제·개정을 완료

[표-8] 정보통신공사 시공기준(표준공법, 표준설계설명서) 추진현황(2012-2024년)

연도	정보통신공사 시공기준 주요내용	
	표준설계설명서 (세부 공종수)	표준공법서 (세부 공종수)
2012년	• 구내통신 등 공통분야 1종 (15개)	• 구내 배관·배선설비 등 3종 (23개)
2013년	• 정보망/매체설비 1종 (15개)	• 근거리통신망설비 등 3종 (19개)
2014년	• 정보제어설비 1종 (8개), 보안설비 1종 (7개)	• 지능형스마트빌딩 등 2종 (26개)
2015년	• 무선설비 1종 (8개), 방송설비 1종 (8개)	• 안테나설비 등 2종 (11개)
2016년	• 철도통신설비 1종 (13개)	• 철도신호설비 등 2종 (13개)
2017년	• 통신전원 및 접지설비 1종 (11개)	• 통신전원설비 등 2종 (9개)
2018년	• 선박·해상·항만통신설비 1종 (13개)	• 선박통신설비 등 2종 (21개)
2019년	• 항공·항행통신설비 1종 (17개)	• 항공·항행통신설비 1종 (13개)
2020년	• ICT + 농·수산업 1종 (8개)	• ICT + 농·수산업 1종 (4개)
2021년	• ICT + 의료/복지/환경통신산업 1종 (10개)	• ICT + 의료/복지/환경통신산업 1종 (10개)
2022년	• ICT + 안전산업 1종 (9개)	• ICT + 안전산업 1종 (9개)
2023년	• ICT + 교통산업 1종 (7개)	• ICT + 교통산업 1종 (7개)
2024년	• ICT + 건설산업 1종 (7개)	• ICT + 건설산업 1종 (7개)
합계	15종(154개)	22종(172개)

※ 2025년 표준설계설명서 및 표준공법의 스마트융합설비(ICT+에너지 분야) 개발 추진 중

4. 시사점

- ▣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전환(DX) 가속화로 정보통신공사는 단순한 네트워크 구축을 넘어 스마트 인프라 및 초연결 사회 구현의 핵심 요소로 자리 잡음
 - AI, IoT, 5G 등 첨단 기술과의 융합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며, 이에 따라 정보통신공사 설계 및 시공기준 역할이 확대되는 만큼 체계적인 관리와 지속적인 기술 개선이 필요
- ▣ 최신 기술을 반영한 설계 및 시공기준이 지속적으로 제·개정되고 있지만, 기술 발전 속도를 고려할 때 더욱 신속하고 유연한 대응이 필요
 - 디지털 인프라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려면 사전 예방적 차원의 기술기준 보완이 필수적이며, 표준공법과 표준설계설명서를 현실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준비가 필요
 - 스마트 융합 공종이 증가하면서 정보통신공사의 영역이 더욱 확대되고 있는 만큼, 각 산업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설계 및 시공 기준 마련이 필요

- ☑ 정보통신공사의 품질은 전문 인력의 역량과 최신 기술 적용 능력에 의해 결정
 - 정부와 관련 협단체가 협력하여 전문 인력 양성 체계를 구축하고, 지속적인 교육과 기술 습득 기회 제공이 필요
 - AI 기반 자동화 설계·시공 기술, 빅데이터를 활용한 유지보수 예측 시스템 등의 도입을 통해 공사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

- ☑ 국내 정보통신공사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2023년 총 19조 5,884억 원 규모로 전년 대비 5.9% 증가하는 등 지속적인 확장세
 - 특히, 구내통신설비공사 및 정보제어·보안설비공사가 주요 공종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향후 정보통신공사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정부 차원의 정책적 지원과 민간 부문의 적극적인 기술 개발 및 투자가 필요

- ☑ 정보통신공사는 「정보통신공사업법」을 포함한 다양한 법령과 규제를 준수해야 하며, 지속적인 기술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 법·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중요
 - 정보통신공사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신기술 도입과 연구개발(R&D)의 투자 확대가 필요하며, 국내·외 표준과의 연계 강화 필요

- ☑ 정보통신공사는 단순한 네트워크 구축을 넘어 미래 산업과 사회 전반을 변화시키는 핵심 동력이 될 것으로 예상



Issue Brief

- 1.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 제도 시행 28
 - 2. SK텔레콤 유심 해킹 대란 31
 - 3. 국방 5G 인프라 구축사업 추진 34
 - 4. 2025년도 통신서비스 품질평가 추진계획 발표 36
 - 5. AI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 급증 39
-

Issue Brief

1.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 제도 시행

“ 2025년 7월 19일, 연면적 3만㎡ 이상 건축물을 시작으로
2027년까지 단계적으로 적용 범위 확대 ”

1. 도입 배경

- 현재 건축물 내에는 방송통신설비, 인터넷설비 등 다양한 정보통신설비가 설치되어 있으나, 소방·전기설비와 달리 유지보수 책임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어 고장설비 방치·훼손 등 관리 미흡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 이를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3년 7월 「정보통신공사업법」을 개정하여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제도 시행의 기틀을 마련하고, 건축물의 관리주체로 하여금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하거나 전문업체에 업무를 위탁하도록 의무화

국민의 일상에 깊숙이 스며들어 있는 인터넷의 기초 인프라인 정보통신설비에 대한 정기적·체계적인 유지보수·관리를 통해 발생 가능한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국민의 안전과 편의를 보장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 제도의 적용 대상은 연면적 5,000㎡ 이상의 건축물과 학교 시설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고시하는 건축물 등으로 규정
- 다만, 공동주택의 경우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 충돌로 이번 의무 적용 대상에서는 제외
- 또한, 안정적인 제도 정착을 위해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시행 유예기간*을 차등 부여함

* 연면적 3만㎡ 이상 : '25.7.19.부터 의무 적용

* 연면적 1만㎡ 이상 ~ 3만㎡ 미만 : '26.7.19.부터 의무 적용

* 연면적 5천㎡ 이상 ~ 1만㎡ 미만 : '27.7.19.부터 의무 적용

- 선임된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는 원칙적으로 다른 건축물 등에 중복 선임 불가능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15조제2항, '25.5.2.)
 - 다만, 유지보수 등의 업무를 위탁한 경우로서 ① 동일한 시·군 지역에 있는 건축물과 ②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 중 연면적 1만㎡ 미만의 건축물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명의 유지보수·관리자를 최대 5개의 건축물에 중복 선임할 수 있음
- 건축물의 연면적에 따라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로 선임되려면 해당 정보통신기술자 자격을 갖추고 20시간 이상의 인정교육을 이수해야 함(「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15조제2항 및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기준」 고시 제정(안) 재행정예고 '25.5.2.)

[표 1]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의 선임기준 및 인정교육 실시기준

건축물 규모	필요 자격	교육시기	교육시간
연면적 6만㎡ 이상	특급기술자 이상	선임일 전	20시간 이상
연면적 3만㎡ 이상 ~ 6만㎡ 미만	고급기술자 이상		
연면적 1만5천㎡ 이상 ~ 3만㎡ 미만	중급기술자 이상		
연면적 5천㎡ 이상 ~ 1만5천㎡ 미만	초급기술자 이상		

-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대상 정보통신설비는 크게 통신설비, 방송설비, 정보설비, 기타 설비 4개 분야, 34개 세부 설비로 구분됨(「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기준」 고시 제정(안) 재행정예고 '25.5.2.)
 - 구체적으로 케이블설비, 배관설비, 국선인입설비 등 통신설비(8개), 방송설비인 방송음향 설비(1개), 네트워크설비, 주차관제시스템, 무인택배시스템, 영상정보처리기기 시스템, 홈 네트워크 이용자 설비(전유부분) 등 정보설비(23개), 통신용 전원설비 등 기타설비(2개)

3. 교육 체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인정교육을 위탁 받은 ICT폴리텍 대학은 2025년 5월 26일부터 매주 2회 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 총 22시간 동안 비대면 실시간 화상교육으로 진행되며, 정보통신설비의 성능점검 제도를 이해하고 관리주체, 성능점검 기록물 작성에 대한 업무수행 능력 등을 배양

Issue Brief

4. 과태료 부과 기준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 제도 위반 시 과태료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부과됨

[표 2]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 제도 위반 시 과태료

위반 행위	과태료 금액	관련 법조문
유지보수·관리기준 미준수	300만원	법 제37조의3제1항
점검기록 미작성 또는 허위작성		법 제37조의3제2항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미선임		법 제37조의4제2항
해임 후 30일 내 신규 관리자 미선임		법 제37조의4제5항
점검기록 미보존 (10년)	150만원	법 제37조의3제3항
점검기록 미제출	100만원	법 제37조의3제3항
선임 신고 미실시 또는 허위신고		법 제37조의4제3항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 제도” 시행은 단순한 법률 시행을 넘어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대한민국 정보통신 인프라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

2. SK텔레콤 유심 해킹 대란

“ 2025년 4월 발생한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건은 국내 통신 인프라의 보안 취약성을 적나라게 드러낸 초유의 사이버 보안 사고로 기록됨 ”

1. 사건 개요

- 2025년 4월 18일 오후 6시 9분경, SK텔레콤 네트워크 인프라센터에서 비정상적인 트래픽이 최초로 감지되었으며, 같은 날 오후 11시 20분경 악성코드가 발견되면서 해킹 공격이 확인됨
 - 공격자들은 리눅스 기반 백도어 악성코드 'BPFDoor'를 활용해 HSS(Home Subscriber Server) 서버에 침투했으며, 이를 통해 대규모 유심 정보를 탈취함
- SK텔레콤은 4월 19일 오후 11시 40분경 유심 정보 유출 사실을 내부적으로 확정했으나,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공식 신고는 4월 20일 오후 4시 46분에 이루어짐
 - 이는 법적 신고 의무인 24시간을 40시간 이상 초과한 것으로, 초동 대응의 지연에 대한 비판이 제기됨
- 민관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 악성코드에 감염된 서버는 총 23대, 사용된 악성코드는 25종으로 확인되었으며, 유출된 유심 정보는 가입자 식별키(IMSI) 기준 약 2,700만 건으로, SK텔레콤 전체 가입자 수인 2,500만 명을 초과한 규모인 것으로 나타남
 - 특히, 최초 악성코드 설치 시점이 2022년 6월 15일로 확인되어, 3년 가까이 장기간에 걸친 침투였음이 드러남
 - 이는 지능형 지속 공격(APT)의 전형적인 특징으로, 공격자들이 오랜 기간 동안 시스템 내부에 잠복하며 은밀하게 활동했음을 시사함

Issue Brief

2. 기업 및 사회적 파급

- 해킹 사고 이후 SK텔레콤의 고객 이탈이 급격히 증가했으며, 금융권도 SKT 유심 정보 유출에 따른 2차 피해를 우려하여 즉각적인 대응에 나섬
- 2025년 4월 한 달간 SK텔레콤에서 타 통신사로 이동한 가입자는 23만 7천여 명으로 전월 대비 87% 증가
- NH농협생명은 4월 28일 오후 6시부터 SK텔레콤을 통한 인증을 중단했으며, KB캐피탈도 휴대전화 인증을 통한 로그인이 당분간 불가능하다고 공지
- 금융감독원은 4월 24일 검사대상 금융회사 전체에 '이동통신사 유심 해킹사고 관련 유의 사항'을 배포하고, 휴대전화 본인인증만으로 인증이 완료되는 경우 추가 인증수단을 고려하라고 당부함

3. 정부와 국회의 대응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4월 24일 민관합동 조사단을 구성하여, SK텔레콤 내 리눅스 서버 3만여 대를 네 차례에 걸쳐 점검하며 정밀 분석을 실시함
- 또한, 과기정통부는 행정절차법에 근거한 행정지도 형식으로 SK텔레콤에 6가지 조치를 요구함
- ① 일일 브리핑을 통한 투명한 정보 공개, ② 유심 물량 안정화까지 신규 가입자 모집 전면 중단, ③ 유심 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 이행, ④ 100% 피해 보상 책임 명시, ⑤ 위약금 면제 등 이용자 중심 제도 개선 검토, ⑥ 연휴 기간 공항 현장 인력 확대 등
- 국회 과방위는 4월 30일 SK텔레콤 해킹 관련 청문회를 개최하고, SK텔레콤의 정보보호 투자 규모가 경쟁사 대비 현저히 낮다는 점을 지적함
- 가입자 1인당 보안 투자액이 SK텔레콤은 2,400원, KT는 6,700원, LG유플러스는 4,000원 수준으로 나타남

4. SK텔레콤의 대응

- SK텔레콤은 유심 해킹 사실을 확인한 후에도 내부 원인 분석에 집중하며 외부 공지를 지연한 점, 법정 신고 의무를 위반한 점, 정확한 피해 규모를 파악하지 못한 채 과소 추정하여 발표한 점 등 여러 측면에서 초기 대응에 대해 비판을 받음
- SK텔레콤은 사태 수습 및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시행함
 - (유심 무상 교체) 4월 28일부터 전국 2,600여 개 T월드 매장과 공항 로밍센터에서 전 고객 대상 유심(보유 물량 100만개) 무상 교체 서비스를 시작, 5월과 6월에 각각 500만 개씩 추가 확보 계획을 발표
 - (유심보호서비스 자동 가입) 5월 2일부터 전 고객에서 유심보호서비스를 자동으로 가입 시키는 조치를 시행, 불법 복제된 유심이 다른 단말기에서 작동하는 것을 원천 차단하는 기능을 제공
 - (신규 가입 중단) 5월 5일부터 전국 T월드 매장에서 신규 가입 및 번호이동 접수를 전면 중단하고, 유심 교체 업무에만 집중하도록 함
 - (FDS 시스템 강화) 비정상 인증 시도를 차단하는 FDS(Fraud Detection System)을 최고 수준으로 강화함

5. 후속 입법 진행 상황

-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고 이후 국회에서는 정보보호 강화를 위한 후속 입법이 활발히 진행되며, 과방위와 정무위, 산자위에서 총 14건의 관련 법안이 발의됨
- 주요 법안으로 ▲통신사의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침해사고 시 위약금 면제 ▲유출된 정보의 불법 유통 모니터링 의무화 ▲개인정보 유출 항목에 대한 개별통지 의무화 등이 포함

이번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건은 단순한 개인정보 유출을 넘어서 디지털 사회의 신뢰 기반을 근본적으로 흔들어 놓았으며, 국가 차원의 정보보호 체계 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촉발시킴

3. 국방 5G 인프라 구축사업 추진

“ 초연결 5G로 실시간 정보와 첨단기술이 융합되는 스마트 국방, 대한민국의 안전과 혁신을 동시에 실현하다 ”

1. 추진 배경 및 경과

- 국방부는 초고속·초저지연·초연결이라는 5G의 특성을 군 작전 및 업무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병력 자원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무인화·원격화 등 첨단기술 기반의 군 혁신을 추진하고 있음
 - 이를 위해 기존 유선 네트워크에서 벗어나 군 전용 5G 무선망(이음5G 특화망)을 구축하는 사업을 시작
- 2023년 4월, 국방부는 국가 5G 정책과 연계한 ‘국방5G 추진전략’을 수립했으며, 5G 인프라 구축을 위한 다양한 시범사업을 실시해 왔음
 - 시범사업의 대표 사례로는 공군 제5공중기동비행단이 선정되어, 부대 내 경계·화생방·소방·응급차·작전차량 등 80여 대의 GPS 좌표와 현장 영상을 지휘소에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체계와 스마트유류관리 등 무인·원격 시스템 도입

2. 기술 및 정책 방향

- 이음5G(5G 특화망)와 상용5G의 융합
 - 국방 5G 인프라는 보안성과 전·평시 생존성을 보장하기 위해 수요기관 전용으로 5G 통신망을 운용할 수 있는 ‘이음5G(5G 특화망)’ 기술과 ‘상용5G’ 기술을 융합 적용하는 것이 핵심

- 초고속·초저지연·초연결 특성 활용
 - 5G 기술의 초고속·초저지연·초연결 특성을 군 작전 및 업무에 활용하여 대용량 데이터를 시간 지연 없이 통신할 수 있어 로봇, 가상·증강현실(VR·AR), 자율주행 등 첨단 기술 구현을 위한 핵심 기술로 활용
- 국방부는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한국국방연구원(KIDA) 등 산·학·연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개최해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민간의 5G 활용사례와 다양한 의견을 정책에 반영
 - 하반기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을 통해 국방 5G 인프라 세부 사업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며, 민간 통신사(이통3사)와의 소통·협업을 통해 도입 가속화

3. 추진 계획

- 2025년 기준, 국방 5G 인프라 구축 시범사업 예산은 약 225억 원 규모로, 2026년 12월 까지 주요 부대*에 4.7Ghz 5G 코어, 장비, 기지국 등 인프라 설치 예정
 - * 국군지휘통신사령부, 육군종합정비창, 해군1함대, 공군19전투비행단 등
- 2028년도까지 공군 13개 기지, 해군 4개 기지, 육군 5개 부대 등에 단계적으로 5G 특화망 구축을 확대할 계획

4. 기대 효과

- 군 통신망의 보안성 및 생존성을 강화하고, 인공지능(AI), 드론, AR·VR 등 첨단기술을 실시간 지휘통제, 정보공유 등 다양한 군사 분야에 적극 활용할 수 있는 기반 마련
- 개별 운용하던 네트워크를 5G 통신망으로 통합·관리함에 따라 군 업무 전반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고, 무인화·자동화 시스템 도입을 통해 병력 감소에도 효과적으로 대응

국방 5G 인프라 구축사업은 단순한 통신 인프라 구축을 넘어 인공지능 과학기술 강군 구현을 위한 핵심 기반 시설로, 미래 국방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전략적 투자로 평가

4.

2025년도 통신서비스 품질평가 추진계획 발표

“ 2025년 4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실사용 환경을 반영한
통신서비스 품질평가 추진계획을 발표 ”

1. 통신서비스 품질평가 개요

- 통신서비스 품질평가는 5G, LTE, 초고속인터넷, Wi-Fi 등 주요 서비스의 접속가능비율, 전송속도 등을 측정하여 이용자에게 통신서비스 품질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품질 향상을 위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1999년부터 매년 시행되고 있는 제도임
- 이번 계획은 5G 서비스 평가 강화와 실내시설 품질 점검 확대를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통신서비스 품질 개선을 목표로 함

2. 2025년 주요 개선사항

- 5G 서비스 평가 강화
 - 2025년 평가에서는 5G 서비스 평가 물량을 기존 400개에서 600개로 대폭 확대하였으며, 특히 늘어난 물량의 절반에 해당하는 300개를 실내시설로 지정하여 실내 체감품질 향상 및 음영 해소를 추진할 계획
 - 실내시설 평가 대상 선정 시에는 실내 5G 무선국이 없는 시설을 중점적으로 선정하여, 음영지역 여부를 점검하고 투자를 유도할 계획
- 5G·LTE 동시 측정 방식 도입
 - 현재 대부분의 5G 서비스는 LTE망과 결합하여 데이터를 전송하는 비단독규격(NSA) 방식으로 제공되고 있어, 실제 이용환경을 반영하기 위한 조치로 5G와 LTE 품질을 동시에 측정하는 방식이 도입

- 이를 통해 LTE망이 5G 서비스에 미치는 영향을 분리해 측정하고, 순수한 5G 품질 개선과 관련 투자 확대를 유도
- 고속철도 구간 집중 점검
 - KTX, SRT 등 연간 이용객이 1억 명 이상인 대중교통임에도 품질미흡지역으로 지적되고 있는 고속철도 구간에 대해 정밀점검을 실시하여, 품질미흡 미개선 구간을 중심으로 통신사의 신속한 개선을 유도할 예정
- 이용자 평가와 망 품질평가 연계 강화
 - 이용자들이 실제 불편함을 느끼는 지역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이용자 평가 결과의 품질 하위 지역을 망 품질평가 대상 지역으로 선정하고, 이를 통해 이용자 평가와 망 품질평가 간의 연계성을 높일 예정
 - 이용자 평가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에서 제공하는 앱(무선인터넷 속도측정)이나 인터넷 품질측정 웹사이트를 통해 참여할 수 있음
- 농어촌 지역 확대
 - 2024년 4월 완료된 농어촌 5G 전국망 구축과 연계하여 품질 점검을 강화하는 조치로, 농어촌 5G 공동망 측정 대상을 기존 45개 읍면에서 60개 읍면으로 확대
- 동영상 서비스 기준 마련
 - 동영상 서비스 가용률 등 주로 사용하는 콘텐츠를 원활히 이용 가능한 전송속도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평가를 추진하여 이용자 중심의 품질 측정을 강화
- 평가 신뢰성 제고
 - 측정과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평가결과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소비자단체 등의 측정과정 참관을 추진할 계획

Issue Brief

3. 평가 일정

- (8월) 전년도 평가 결과에서 확인된 5G·LTE 접속 미흡 시설 및 품질 미흡 지역에 대한 개선 여부를 점검하여 중간 발표
- (12월) 2025년 전체 통신서비스 품질평가 종합 결과 발표

[그림 1] 2025년 통신서비스 품질평가 개선사항

	기 존('24)	개 선('25~)
5G 전체 측정 물량	400개	600개
5G 취약지역 측정 물량	실내시설 160개(40%) 농어촌 공동망 45개 읍면	실내시설 300개(50%) 농어촌 공동망 60개 읍면
고속철도 점검	별도 정밀점검 미시행	품질미흡 미개선 구간 정밀점검
측정 방식	5G-LTE 독립 측정	5G-LTE 동시 측정 도입
망 품질평가 대상지역	이용자평가 결과와 별도로 선정	이용자평가 결과 하위지역 포함 및 연계
이용자 체감 품질 지표	별도 이용자 체감 품질지표 미도입	동영상 등 체감 품질 지표 신설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도자료(2025.4.7.)

5. AI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 급증

“ AI 중심 사회로의 진입,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가 던지는 에너지 정책의 새 과제 ”

1. 주요 현황 및 전망

☐ 글로벌 전력 수요 전망

- 국제에너지기구(IEA)를 포함한 주요 기관들은 공통적으로 AI 기술 확산에 따른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의 폭발적 증가를 전망하고 있음
- IEA는 2030년까지 전 세계 데이터센터의 전력 수요가 2022년 460TWh에서 945TWh로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였으며, 특히 AI 데이터센터의 경우 4배 이상의 증가를 예상
- 가트너는 AI와 생성형 AI로 인해 향후 2년간 데이터센터의 전력 소비량이 160%까지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으며, 2027년까지 기존 AI 데이터센터의 약 40%에서 전력 공급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
- 또한 골드만삭스는 2030년까지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가 2023년 대비 160% 이상 급증할 것으로 분석

☐ 국내 전력 수요 현황

- 국내에서도 AI 기술의 급속한 확산과 디지털 전환 가속화로 인해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추세
- 한국전력거래소에 따르면 2023년 국내 데이터센터의 총 전력 사용량은 약 13.5TWh로, 이는 울산광역시 전체 연간 전력 소비량과 비슷한 수준
- 한국IDC는 국내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가 2025년 4,461MW에서 2028년 6,178MW로 1.4배(연평균 11%) 증가할 것으로 전망

Issue Brief

-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국내 데이터센터는 '23년 12월 기준 150개소에서 '29년 732개소로 늘어날 예정이며, 이에 따라 전력 수요 역시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

2. 전력 수요 급증 주요 원인

☐ AI 기술의 에너지 집약적 특성

- AI 모델의 에너지 소비는 기존 IT 워크로드* 대비 현저히 높음
 - * IT 시스템에서 특정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사용되는 컴퓨팅 자원(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등)의 집합
- 미국 전력연구소(EPRI)에 따르면 ChatGPT는 한 번의 질문 처리에 2.9Wh의 전력을 소모하며, 이는 구글 검색(0.3Wh) 보다 약 10배 높은 수준
- 만약 ChatGPT와 같은 AI 검색 기능이 구글 검색에 통합될 경우, 한 번의 검색에 필요한 전력량이 6.9~8.9Wh까지 늘어나 최대 30배의 전력 소모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

☐ 데이터센터 운영 특성의 변화

- AI 전용 데이터센터는 일반 데이터센터에 비해 평균적으로 2.5배 더 많은 전력을 소모하며, 24시간 연중무휴 고부하 운전이 필요
- NVIDIA의 분석에 따르면 AI 워크로드는 GPU 사용률이 85~95%에 달하며, 이는 일반 클라우드 서버의 CPU 사용률(30~40%) 보다 훨씬 높은 부하율을 보임
- AI 서비스는 생성형 AI, 빅데이터 분석 등 지속적이고 실시간 대규모 연산 처리가 필수적임에 따라 일반 데이터센터에 비해 수요 변동 없이 고부하를 유지하는 경우가 많음

3. 대응 전략

☐ 재생에너지 및 원자력 활용

- 빅테크 기업들은 AI 데이터센터의 막대한 전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재생에너지와 원자력 발전으로 전환하고 있음
- 마이크로소프트는 쓰리마일섬(Three Mile Island) 원전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인 '콘스텔레이션 에너지'와 20년 전력 공급 독점 계약을 체결

- 구글은 '카이로스 파워'와 500MW 규모의 소형모듈원전(SMR) 전력 구매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아마존도 '도미니언 에너지' 등과 소형 원자로 개발 및 원전 전력 확보를 위한 계약을 체결
 - 골드만삭스는 재생에너지가 데이터센터 증가 전력 수요의 40%를 담당할 것으로 예측하면서, 24시간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서는 원자력이나 천연가스와 같은 기저발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분석
- * 전력 수요가 가장 적을 때에도 지속적으로 공급되는 전력

☐ 에너지 효율화 기술 개발

- 데이터센터 운영사들은 다양한 에너지 효율화 기술을 도입하고 있음
 - 구글은 AI 기반 실시간 냉각 제어를 통해 냉각 전력소비를 평균 30% 감축했으며, 마이크로소프트는 무수(Waterless) 침지냉각*을 도입해 물 사용 효율을 39% 개선
- * 기존의 물을 사용하는 냉각 방식과 달리, 냉각수(물)를 사용하지 않고 전자기구나 서버, 데이터센터 등의 열을 효율적으로 제거하는 냉각 기술
- 네이버는 자체 공조시스템 '나무(NAMU)'를 통해 직·간접 외기를 적극 활용하여 인위적인 에너지 사용을 최소화하고 있으며, 삼성SDS는 외기 냉방, 공조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있음

☐ 데이터센터 지역 분산 정책

- 정부는 2024년 6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을 통해 데이터센터 수도권 신설을 제한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내 ICT 기업들은 데이터센터를 지방으로 분산하는 추세
- 네이버는 춘천과 세종에 데이터센터를 설립했으며, NHN클라우드의 AI 데이터센터는 광주에 자리 잡음

AI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 급증은 국가 차원의 종합적 대응이 필요한 이슈로, 단순한 전력 공급 확대가 아닌 지속 가능한 에너지 생태계 구축을 통해 디지털 인프라 기반 마련이 필요



Stats

-
- | | |
|------------------------|----|
| 1. 정보통신공사비지수 | 44 |
| 2. 정보통신공사업 경기실사지수(BSI) | 45 |
-

Issue Brie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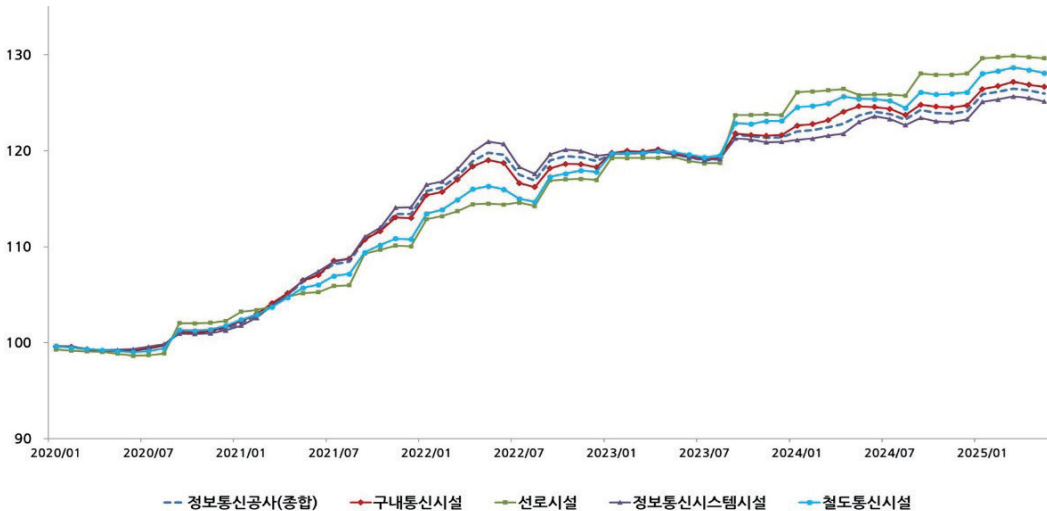
6. 정보통신공사비지수 동향

“ 2025년 5월 정보통신공사비지수는 125.96(2020년=100)로, 전월 대비 0.25% 하락, 전년 동월 대비 1.85% 상승 ”

공사비지수란 직접공사비를 대상으로 생산자물가지수, 시중노임 자료 등을 활용하여 작성된 가공통계로서, 직접공사비의 가격변동을 측정하고 현가화 하는 등의 기준치로 활용하는 지수

- 정보통신공사비지수 상승의 주요 원인은 공사비지수 산정을 위한 기초자료인 생산자물가지수 품목 중 컴퓨터·전자 및 광학기기 등의 가격 하락(전월 대비 1.0% 하락)

[그림 1] 정보통신공사비지수 동향(2020.1.~202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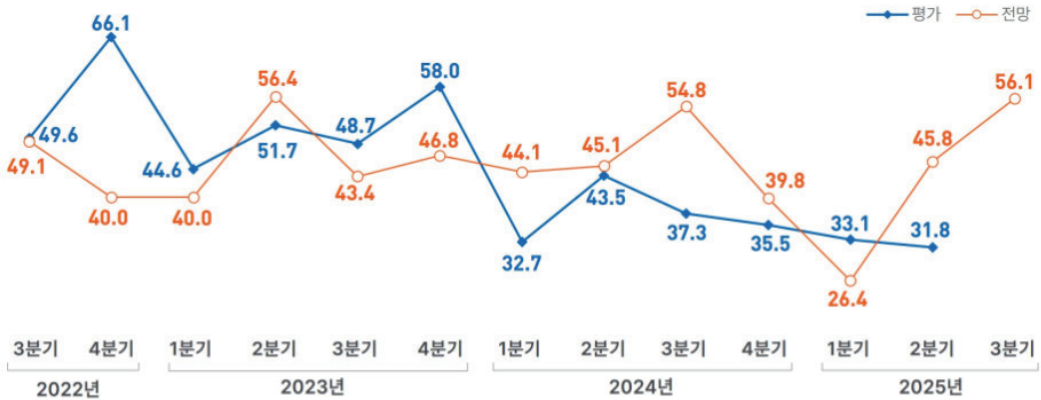
※ 5월 지수는 잠정치이며, 6월 지수 공표(7월 말 예정) 시 확정

- 2025년 5월 정보통신공사 분야별 전월 대비 지수 상승률은 정보제어설비 0.32%, 철도통신설비 0.25%, 업무용 및 기타건축물설비 0.19%, 정보통신특수설비 0.17%, 공동주택설비 0.10%, 선로설비 0.09%로 정보제어설비에서 가장 높은 하락률을 보임

7. 정보통신공사업 경기실사지수(BSI)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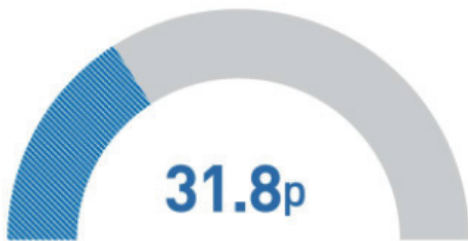
경기실사지수(BSI)

경기동향에 대한 기업들의 판단, 예측 등을 조사하여 지수화한 지표.
100 이상이면 경기상황을 낙관적으로,
100 미만이면 경기상황을 비관적으로 응답한 기업이 많음.



경기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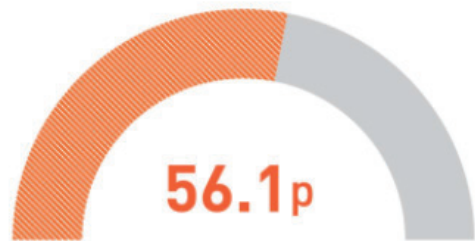
1분기 평가 대비 1.3p 하락 ↓



[2025년2분기평가]

경기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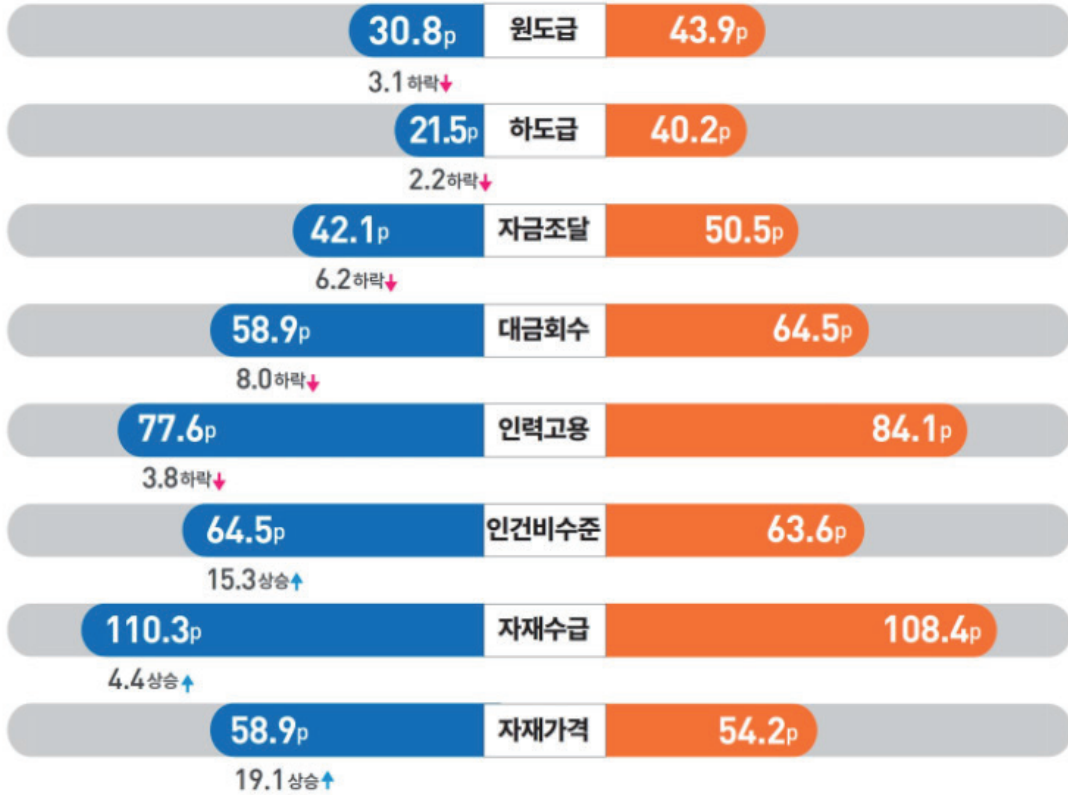
2분기 평가 대비 24.3p 상승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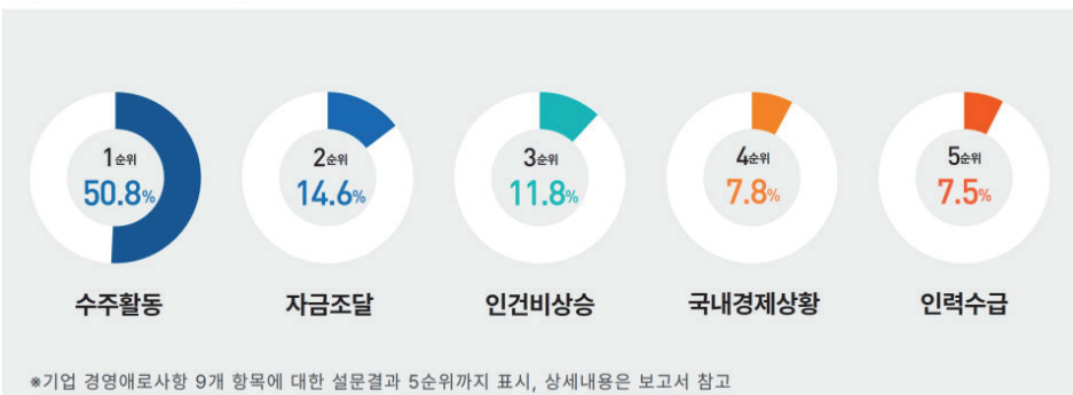
[2025년3분기전망]

Issue Brief

———— [2025년2분기평가] ———— ———— [2025년3분기전망] ————



경영애로사항





1 2025년도 제2차 구내통신선로설비 기술기준 WG 회의

일시 2025. 4. 2.

장소 서울역 공항철도 회의실



동단자함 설치 인정범위 확대 개선(안) 및 「접지설비·구내 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등에 대한 기술기준」 내 용어 개선(안) 검토



2 2025년도 제3차 구내통신선로설비 기술기준 WG 회의

일시 2025. 4. 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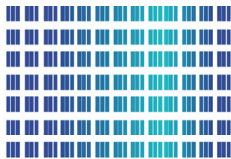
장소 스페이스쉐어 서울역센터



동단자함 설치 인정범위 확대 개선(안) 및 「접지설비·구내 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등에 대한 기술기준」 개정(안) 검토

3

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
Digital Safety
Report



KICI Digital Safety Report 창간호 발간

일시 2025. 5.

장소 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 디지털안전본부



KICI 디지털안전본부 및 디지털 재난관리 업무 소개, 디지털 안전 관제 이슈, 전문가 칼럼 수록

4



연구원 제43차 이사회 개최

일시 2025. 5. 13.

장소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13층



이사12명과 감사2명이 참석하여 연구원의 운영 효율화 등을 위한 제1호 제 규정 일부 개정(안) 심의 진행



5 2025년 제1차 정보통신공사 설계기준 실무위원회

일시 2025. 5. 23.

장소 한국프레스센터 19층



‘25년 정보통신공사 설계기준(항공·항만·선박분야) 개발 현황 보고 및 향후 추진방향 토의



6 2025년도 제2차 구내통신선로설비 기술기준 연구반 회의

일시 2025. 5. 29.

장소 오송&세종컨퍼런스 회의실



「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등에 대한 기술기준」 개정(안) 검토 및 최종 확정,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개선사항 검토 등



7 2025년도 제1차 정보통신공사 시공기준 실무위원회

일시 2025. 5. 30.

장소 스페이스쉐어 서울역센터



‘25년 정보통신공사 설계 및 시공기준(ICT+에너지분야) 개발 현황 보고 및 향후 추진방향 논의



8 2025년도 제1차 정보통신공사 공사비산정기준 전문위원회 개최

일시 2025. 6. 11.

장소 한국프레스센터 19층



‘25년도 하반기 적용 정보통신공사 표준시장단가(안) 심의 진행



2025년 제2차 정보통신공사 설계기준 실무위원회

일시 2025. 6. 17.

장소 한국프레스센터 19층



'25년 정보통신공사 설계기준(항공·항만·선박분야) 개발 현황 보고 및 향후 추진방향 토의



2025년도 제1차 정보통신공사 공사비산정기준 심의위원회 개최

일시 2025. 6. 19.

장소 한국프레스센터 19층



'25년도 하반기 적용 정보통신공사 표준시장단가(안) 심의 확정



한국통신학회 「재난안전정보기술 연구회」 참가

일시 2025.6.19.~20.

장소 제주 신화월드 컨벤션센터



디지털 재난·장애 관리체계 및 합리적 규제정책 방향성에 대한 특강 진행 및 재난안전정보기술 연구회와의 협력 방안 논의



중요통신시설 안전점검 안전보건협의회 개최

일시 2025. 4.21., 5.23., 6.24.

장소 중앙전파관리소, KT클라우드 목동2 IDC



중요통신시설 소방/전기 안전점검 현장 종사자들에 대한 현장 실태조사, 작업장 잠재위험요인 및 자체 개선(안) 논의

Event Info



2025 데이터센터 서밋 코리아

2025. 7. 14.(월)
코엑스 그랜드볼룸 101~105

<https://www.sek.co.kr/2025/datacenter/>

- 입장료: 무료 (사전등록자에 한함)
- 온라인 사전등록 기간: 7월 11일(금) 17:00



인공지능(AI) 시대에 맞는 지속가능한 데이터센터 구현 전략과 미래 방향성 제시

주최: 전자신문, (사)한국데이터센터연합회

K-AI 커뮤니티 서밋 2025

2025. 7. 23.(수) / 14:00
국회도서관 지하1층 대강당

<https://onoffmix.com/event/>

- 입장료: 무료
- 온라인 사전등록 기간: 없음



정책 입안자와 AI 개발자, 커뮤니티 리더들이 한자리에 모여 국내 AI 산업의 성과와 미래 전략을 논의

주최: 더불어민주당 박민규 의원



Ai4 2025

2025. 8. 11.(월) ~ 13.(수)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 MGM Grand

<https://ai4.io/vegas/>

- 입장료: \$1,995(온라인 참가 기준)
- 홈페이지 접수 진행중



북미 최대의 AI 산업 행사,
비즈니스에서의 AI 응용에 중점 둔 대규모 컨퍼런스

주최: Ai4 Conference



2025 스마트 워크 & 컨택센터 엑스포

2025. 8. 20.(수) ~ 22.(금)
코엑스 Hall B

<https://www.swcc.ai/about>

- 입장료: 10,000원 (사전등록시 무료)
- 홈페이지 접수 진행중



스마트한 업무 환경과 컨택센터 솔루션을 위한 최첨단 비즈니스 솔루션/디바이스 전문 B2B 전시회

주최: 제이엑스포, 테크데일리

인공지능 페스타(AI FESTA) 2025

2025. 9. 30.(화) ~ 10. 2.(목)
코엑스 Hall A, 스튜디오 159, 컨퍼런스 룸 E-307-308

<https://aifesta.kr/>

- 입장료: 무료
- 홈페이지 접수 준비중



대한민국 최대 규모의 AI 혁신 플랫폼으로, 산업계와 시민 모두를 아우르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전시, 체험, 비즈니스 네트워킹 마련

주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스마트라이프워크 2025

2025. 9. 30.(화) ~ 10. 2.(목)
코엑스 Hall C

<https://slw.kr/kor/main.do>

- 입장료: 무료
- 홈페이지 접수 준비중



최첨단 ICT 전시, AI 및 스마트시티 관련 국제 포럼과 글로벌 네트워킹 프로그램 등 진행

주최: 서울특별시, 위고(WeGO)

KICI Brief

2025년 2호

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하롤로 12번길 80(천천동)

TEL. 031-231-3400 FAX. 031-269-5210

www.kici.re.kr